스님 비하 "해도 너무한다"

MBC 마당놀이·KBS '찬란한…'·진로 사보등 흥미위주 묘사

"시주하면 극락간다 책임지고 극락간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스님인가 뭔가하는 이 중놈한테 시주하라고? 염주 목에 걸고 죽을 놈아."

MBC가 주관하는 마당놀이판과 진로그룹이 발행하는 사보,KBS가 방영중인 드라마가 불교를 난도질하고 있다.

현재 정동 문화체육관에서 공연되고 있는 95 MBC마당놀이 옹고집전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대중 상업성에 치우쳐 스님을 백화점식 웃음거리로 등장시키고 있다. 대사내용도 '뱅땡이 중왔네' 등 비하적인 대사가 주를 이루며 특히 스님이 축지법으로 뛰어내린 장면에서는 '아이고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표현까지 쓰고있다.

더구나 이 공연을 강남 구룡사부설 극단 '신시'(대표 김상열)가 이끌고 있어 불자들을 더욱 아연실색케 한다.

최근 발행한 진로그룹의 사보 가을호에 실린 '스님들의 현명한 결정'이라는 야화는 불교훼손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수행자들을 음담패설이나 일삼는 집단으로 묘사, 불교와 수행자상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진로그룹 사보실측은 "필자인 한양대 국문과 김용범교수가 이조시대 홍만종이 쓴 '명엽지해'를 인용한 것" 이라며 "종교적 의미보다는 해학에 치우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근대사에 묻혀있었던 개화승 이동인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KBS-1TV의 대하드라마 '찬란한 여명'도 스님의 생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다.

극중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효옥은 드라마의 극적효과를 위한 가공인물로 동인스님이 아이를 갖게 한다는 내용으로까지 치달았다.(12월2일·3일 방영).

뿐만아니라 극중에서는 "중놈이 어떻게 처녀에게 임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다그치는 대목도 나온다.

'찬란한 여명'의 한 제작 관계자는 "개항사가 자칫 남성위주로 흐르는 소지가 있어 효옥은 드라마의 조화와 윤활유 역할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송·공연을 통한 불교비하와 왜곡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돼왔던 문제다. 그러나 아직 교계에는 각종매체와 문화현장의 훼불을 감시할 기구가 없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MBC 마당놀이 '옹고집전' 은 상업성이 지나쳐 스님을 백화점식 웃음거리로 등장시키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 행사에 참석한 불자들이 해인사 원당암에서 혜암 방장스님을 친견, 법문을 청했다.

"변치않는 참주인공 찾아라"

해인총림 혜암 방장스님 친견법회서 사자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해인사 총림 방장)이 현대불교 애독자를 위해 큰 사자후를 토했다.

지난 25일 오후1시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조계종 4대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에서 스님은 "생멸을 거듭하는 마음은 뜬구름처럼 허망한 것"이라며 "언제나 변치않는 참 주인공을 찾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전국에서 해인사 원당암을 찾은 1백50여 불자들에게 스님은 "모두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거지죽음이나 대통령죽음이나 똑같다"며 "세간사중 욜다고 할 수 있는것은 남을 위해 사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2시간여의 법문이 끝난후 불자들은 스님과 함께 선방건립 불사현장을 돌아보는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소외계층 원호사업

서울 대불청, 9일 회향

대불청 서울지구(회장 김유범)는 오는 9일 금강정사에서 '소외계층 원호사업' 회향식을 갖는다.

대불청 서울지구는 지난 10월22일 불청대회를 기점으로 원호사업을 전개, 강연회, 보육원·재활원봉사활동, 양심수 및 장기수를 위한 기금마련, 장기기증 활동과 홍보활동 등을 펼쳐왔다.

서울지구는 오는 9일 70명의 장기기증 활동보고와 함께 양심수였던 백낙기씨에게 기금 50만원을 전달하는 것으로 49일간 활동해온 소외계층 원호사업을 회향하게 된다.

'나눔의 집' 완공

정신대할머니 보금자리 19일부터 입주

정신대 할머니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될 나눔의 집(원장 혜진스님)이 4개월여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12월 9일부터 본격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소재)은 17개의 방과 정원, 휴식공간등 편의시설과 정신대 관련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소규모 전시공간도 갖추고 있으며 내년 3월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월주스님)는 그동안 혜화동에 거주해 왔던 7명의 정신대 할머니와 무의탁 정신대할머니를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접수중이다.

이와함께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는 후원회원과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다.

(02)723-0851

'불교발전강연회' 개최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정태)는 지난달 24일 국제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발전 대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연사로 나선 근일스님은 "불교발전을 위해서는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자들도 본성을 찾기위한 참선에 열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실업인회는 김태완(부산대 박사과정)씨외 2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새 불교운동 전국승가회' 출범

승가 의식개혁 추진… 상임의장에 진관스님

새로운 불교운동을 통하여 승가인의 의식을 개혁하고 불교의 대중화·사회화를 확대하여 불교중흥을 이룩한다는 취지의 '새 불교운동 전국승가회'(이하 '승가회')가 지난 1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회원 및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전 4장 총 29조의 정관이 채택되고 공동의장에 진관(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도현(영암 도갑사 주지) 석담(법주사 총무)스님, 상임의장에 진관스님, 사무처장에 진육스님이 선출됐다.

선재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법회는 경과보고에 이어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치사, 설정(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산(조계종 교육원장) 종하(불교방송 이사장)스님의 축사,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의 법어 등으로 진행됐다.

승가회는 창립선언문에서 "불교는 종단운영의 성숙된 모습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가일층 자기변화의 노력을 경주하여 여러 난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한국사회에 올바른 개혁의 모델을 제시해 사회를 선도하는 종교로서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수행과 교화를 겸비하여 사회통합력을 발휘하는 불교, 생활속의 불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불교를 염원하며 수행자가 존중받는 풍토조성과 승려기강을 확립, 인류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건강한 승가상을 확립해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도해스님 25일 입적

월공당 도해(月空堂 道海, 부산 복천사 주지)스님이 지난달 25일 오전 7시15분 입적, 29일 범어사 지장암에서 다비식을 치뤘다.

세수 62세, 법랍 41세인 도해스님은 부산 영주암 주지, 범어사 재무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73년 복천사 주지로 취임하여 경내지를 확보하는 등 각종 중창불사에 힘써왔다.

'참정권 제한 산중총회법' 재론 촉구

전승련 공개질의서

전국승가대학인연합(의장 각원)은 지난달 24일 조계종 정기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산중총회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내고 "새로 제정된 산중총회법 제 4조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독주와 승단 구성원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법 제정"이라 주장하며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승련은 "비구계 수지후 5년이 경과되어야만 참정권이 인정된다는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며, 몇몇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독주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수행정진에 몰두해야 할 학인들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취지는 마치 학인들이 종권에 관심이 있는양 매도하는 것으로, 대다수 학인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찰재정 효율관리 필요"

개혁종단현황설문 '생산불교' 관심 확산

사찰재정의 효율적 관리는 사찰재정상태는 물론 종단의 재정상태를 호전시키는 필수적 조치라는 반응이 나왔다.

개혁종단 출범 1년을 맞아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계승대법회 행사추진위원회'가 전국의 스님과 재가신도 2천여명(응답 526명)을 대상으로 개혁종단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단의 재정확보 방안으로 '총무원의 자체 수익사업' '특별분담금 사찰의 확대와 분담금 비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 집행부가 출범초기 내세웠던 '생산불교'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원활한 종무행정을 위해서는 '정기교육 및 각종 세미나를 개최해 능력을 향상시킨다'(31.2%)' '교육과 능력 전문성 등을 인사에 반영(24.8%)' '소임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12.4%)'로 나타나 종무행정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총체적 능력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합리적 조치가 불가피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

종단의 부설기관에 대해서는 '종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으며 종단의 선거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1%가 '시행방법 폐단을 시정하여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불교계의 사회참여 활동영역으로는 '사회복지활동' '포교활동' '환경운동' '시민운동' 순으로 꼽혀 개혁종단이 향후 이러한 활동들이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0만 국군의 전불자화"

육해공군 군승단(단장 강남석)은 지난달 30일 제 27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을 비롯 스님과 육해공 군법사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 60만 국군의 전불자화를 다짐했다. 그러나 현재 군법사는 1백여명으로 1인당 약 1만여명의 장병을 상대하고 있어 군법사의 증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해인사 대장경각 보수 착수

문화재관리국은 지난달 29일 공사비 8천3백50만원을 들여 국보 제52호인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 대한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2월 6일까지 70일동안 시행되는 이번 공사에서 장경각 입구 수다라장과 뒤쪽 법보전기와 전량이 교체된다.

김장김치 보시

경불련 자비의 집

경불련 자비의 집이 개소 2주년을 맞아 무의탁, 생활보호대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겨울나기' 행사를 마련했다.

자비의 집은 지난 30일 자비의 집 후원회원들이 직접 만든 김장 김치를 지역 2백여가구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자비의 집은 식품업체의 협조를 받아 밑반찬 1천여통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겨울의류 1천5백벌을 전달하기도 했다.

자비의 집은 봄이 올때까지 겨울의류와 먹거리를 수시로 전달할 예정이다.

조계종 주지 연수

범어사·은해사 본말사

조계종 범어사(주지 정관)와 은해사(주지 일타)가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본말사주지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휴휴정사에서 열린 범어사 교육에서는 50여명의 말사주지 스님이 참석, '한국사회속의 종교현황(포교부장)' '종두행정 및 리더쉽(부산대 이광수교수)' '불교사회복지에 대하여(이용권씨)' 등의 특강과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은해사도 금강율원에서 60여명의 주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법타스님의 '통일을 대비한 남북불교의 역할'이라는 강의를 필두로 설조스님, 원산스님, 태일스님 등에 의한 총 8차례의 강의가 진행됐다.

통일, 성보문화재 관리, 종단교육방침, 종무행정, 종단흐름, 사찰안보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진 이번 연수회의 전체토론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의 불교의 역할'이라는 논제가 토의되었다.

◇범어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박3일간 휴휴정사에서 본말사 주지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부산=박병근 기자〉

"선학원과 적극대화"

조계종 법인대책위

조계종산하 법인대책특위(위원장 정우스님)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갖고 선학원의 분종을 막기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위는 위원들로 홍보 대화 법적대응 징계등 4개 팀을 구성해 선학원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며 오는 15일 조계종과 선학원의 원로스님 특위위원 분원장 등이 모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선기금 1천만원 전달

불교사회봉사회, 음악회수익금 백혈병어린이 환자 등에

한국불교사회봉사회(법주 중원스님)는 지난달 29일 원효정사서 제4회 자선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불교사회봉사회는 지난 9월30일 열린 자선음악회의 수익금 1천만원을 박재연, 백승주, 윤지로, 신세연 등 백혈병 어린이환자와 심신중격결손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애나 어린이에게 전달했다.

불교학생회 운영 중·고교 '불과 4%'

포교원 조사 "청소년 포교 반성 절실"

전국 4천5백79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불교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전체의 4%인 2백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청소년포교가 그동안 포교의 사각지대였음이 입증됐다.

이같은 사실은 포교원 '불교청소년의 해' 기획위원회 조직분과(분과장 우인보)가 지난 10월16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립학교를 제외한 중학교의 경우 전체 2천7백26개교중 1%인 17개교, 고등학교는 1천8백53개교 중 9%인 1백59개교에만 불교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교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는 전국 2백4개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는 서울 4, 부산 3, 광주 1, 경기도 2, 강원도 4, 경남 2, 경북 1개로 총 17개교이고, 고등학교는 서울 37, 부산 38, 대구 4, 인천 3, 광주 5, 대전 2, 경기도 6, 강원도 5, 충청남북 4, 전라남북 12, 경남 16, 제주 6으로 총 1백59개교이다.

우인보교법사는 불교학생회의 부재는 청소년 포교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활동이 학교수업의 중요한 평가자료로 채택되는 5·31 교육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안을 종단 및 청소년지도자들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교 불교학생회 실태파악과 더불어 포교원은 사찰학생회의 운영상황을 오는 20일까지 최종 집계,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일, 10일 청소년 지도자대회와 함께 전국 규모의 청소년단체를 결성, 청소년 포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주에 또 경마장·골프장 건설

교계·주민 古都 훼손행정 '분노'

고속철 통과, 경마장 건설, 무분별한 공단유치 등으로 천년고도 경주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주에 또 하나의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서라벌관광개발(대표 김광택)이 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범허들산 54만평 부지에 27홀 규모로(총 공사비 추정액 3백5억원)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근주민과 대구·경주·울산소재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 외동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야랫마을인 석계1리와 2리를 비롯하여 인근의 문산리, 모화리 등의 식수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골프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천강으로 흘러들 경우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동천강변의 율산지역 아파트주민들의 식수오염도 예상되고 있다. 인근주민들은 식수오염외에도 가축의 기형아 출생, 위화감 조성, 선산의 분묘파괴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서라벌골프장은 지난 90년 6월 허가가 난 이후 수차례의 공사중단사태를 빚은 현재 진입도로공사가 마무리중인 단계이며 분묘 57기중 40여기의 이장협의가 되지 않아 본 공사는 재개되고 있지 않다.

한편 경주, 조선컨트리 클럽등 기존의 4개 골프장외에 또다시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은 세수입 증대에만 급급한 일관성없는 행정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주=이윤호 기자〉

"10·27법난 규명 자주성 회복"

재야단체 5·18특별법 관련 성명

불교계에도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스님)은 지난달 29일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10·27 법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불련은 성명서를 통해 "10·27법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자주성 회복과 의식개혁, 청정한 교단의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대한불교청년회, 동국대 석림동문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등을 비롯 10여개 불교단체들도 지난달 30일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별검사제도 실시 및 양심수 전원석방, 보안법 철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 내년 서울대회 '주제'

"오계파지로 세계 평화 이룩"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의 주제가 '오계파지로 세계평화와 조화를 이룩하자'로 결정됐다.

WFB는 지난달 23일 태국 방콕 아마리호텔에서 열린 52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오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지말라'에서 '…을 하라'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WFB 한국본부 박동기회장은 "서울대회를 통해 전세계불교도들의 △단일성 고취 △자비실천 △윤리회복 △자연보호 △종교간의 조화 △핵과 전쟁억지운동등을 전개하여 지구촌의 평화와 조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WFB서울대회는 1996년 11월1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경주에서 개최되며 40개국 1백50개 지역본부에서 6백여명의 불교지도자가 동참한다.